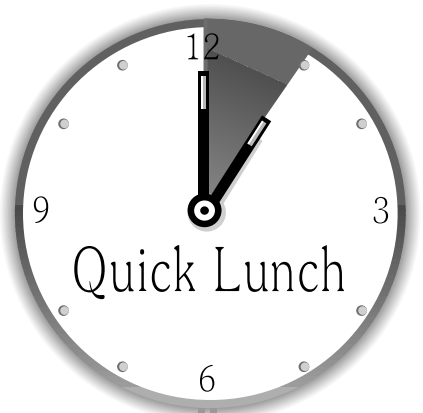


학원수강·피부마사지에 쌍꺼풀수술까지 ...

“점심시간 30분이면 못할 일 없죠”

다양해지는 ‘직장인 점심풍속도’



벤처회사 비서 변수희(卞洙喜·여·25)씨는 지난달 초 회사 근처인 서울 압구정동 김양수 성형외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런치 킷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 걸린 시간은 30분. 변수씨는 “수술 후 바로 회사로 들어가 뺨으로 끼니를 때우고 일했다”며 “비서라 많은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점심시간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쌍꺼풀 수

를 받으며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점심시간 모습이 다양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18분으로 일본 43시간42분, 미국 41시간36분, 호주 38시간36분보다 훨씬 많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회사 등 ‘단체시간’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만큼 소중한 계

헬스클럽·한의원 찾아 건강 지키기도
“시간 쪼개 자기개발... 업무능률 높아져”

술을 받으러 오는 직장인이 주 2~3명 정도 된다. 근처 가네사 피부과에도 점심시간에 직장인 3~4명 정도가 ‘런치 킷’이라는 40분짜리 피부관리를 받고 있다. 이윤주(李倫周·36) 원장은 “직장인들이 식사 후 쉬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

있을까. 특히 점심시간을 1시간 10분~1시간30분까지 쓸 수 있는 직장이 늘면서 이 시간에 가능한 일의 폭이 넓어졌다. 산책과 운동뿐이 아니다. 성형수술, 피부관리, 마사지, 공연감상, 신앙생활, 학원수강... 밥은 간단히 먹고 나머지 30~40분에 원하는 것을 딱딱 해결한다. 간호사 박수현(朴修賢·여·22)씨는 성북구 길음동 한 병원에서 일하던 올 봄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한의원에서 주 1~2회씩 어깨와 목에 침을 맞았다. 박씨는 “점심시간에 밥만 먹기는 아까워서 침을 맞았는데 치료 후엔 무거운 머리가 개운해져서 오후에는 일이 훨씬 잘됐다”고 말했다. 30분 안팎의 ‘킷 마사지’를 해주는 스포츠마사지 전문점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최근 시내에 100여곳이 자리 잡았다. 점심시간 공연관람도 인기다. 역삼동 LG아트센터 로비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열리는 타악밴드 공연은 주변 직장인들로 로비가 꽉 찬다. 덕수궁 뒤 정동극장에서는 10월부터 낮 12시30분부터 30분 동안 관람료 2000원에 제즈, 사물놀이, 현대무용, 실내악 등을 공연한다.



◇24일 낮 12시 서울 시청 뒤 피트니스클럽인 ‘프라임 헬스 앤 골프’에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온 직장인들이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趙寅元기자 join1@chosun.com

신앙인에게도 점심시간은 소중한다. 명동성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15분부터 45분까지 ‘직장인 점심미사’가 열려 직장인 80여명 정도가 참석한다. 한국은행 강남지점에 근무하는 강문옥(姜文玉·58)씨는 격주 화요일 낮 12시에서 40분간 사내 회의실에서 열리는 ‘점심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예불(禮佛)을 드리고 법문(法文)을 공부한다. 점심시간 활용 단골메뉴인 학

원수강, 운동도 여전히 인기다. ELS종료학원의 토익(TOEIC) 문제풀이반 낮 12시 강좌는 정원 100명이 꽉 찬다. 수강생 절반 이상이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인터넷 강좌도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한몫을 한다. 용산에 있는 동양제과는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원이 많아 작년 중순 사옥 안에 100여평의 피트니스 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李圭玆기자 while@chosun.com

고밀도 아파트 용적률 250%로

13개지구 재건축 관련
일반주거지역 기준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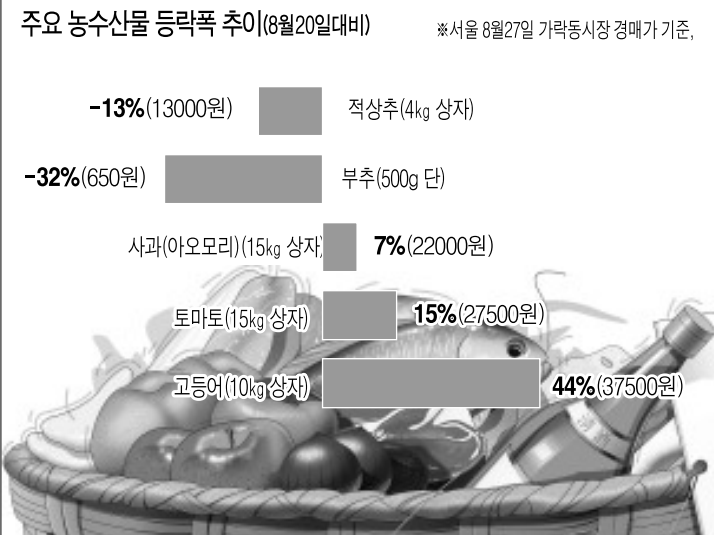
고밀도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지난 6월 대폭 강화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3종으로 세분화한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춰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 8만4000여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고밀도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밀도아파트 용적률

구분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연립주택	160% 이하	4층 이하
저층아파트	150% 이하	5-6층
중층아파트	200% 이하	7-12층
고층아파트	250% 이하	13층 이상
복리시설	250% 이하	5층 이하

시는 고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과 관련,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끝나기(2003년 6월) 전이라도 고밀도아파트지구 용적률 기준을 확정,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3층 이상(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중층아파트의 경우 높이 7~12층, 200% 이하(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로, 저층아파트의 경우 5~6층, 150% 이하(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로 지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중·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고시, 지구별 재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金承範기자 sbkim@chosun.com



“분당線, 1인 운행 위험하다”

성남 15개 시민단체
반대운동 나서기로

철도청이 분당선에 대해 1인 승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민모임 등 성남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분당선 차장 승무생략 저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분당선에 대한 ‘1인 승무제’ 도입에 반대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관사와 차장 2인 승무로 전제로 건설된 분당선에 충분한 안전대책없이 기관사 혼자 운전과 출입문 작동을 맡도록 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시행운행 중인 지난 8일 승강장 반대편 출입문이 열리고, 11

일에는 승객이 열차문에 끼는 등 7차례의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공식 확인된 안전사고는 2건으로, 시행운행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보완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方顯哲기자 bangch@chosun.com

주부극단 ‘물레’ 무료공연

주부극단 ‘물레’는 29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여의도 굿모닝증권 건물에 있는 굿모닝 300홀에서 손튼와일더의 작품 ‘우리 읍내’를 무료로 공연한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작품. 공연장에 가려면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면 된다. ☎(02)783-1001



◇27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압구정동의 ‘김양수 성형외과’에서 한 직장여성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런치 킷 쌍꺼풀 수술’을 받고 있다. /金昌鍾기자 cjkim@chosun.com